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0년 5월

선교편지 제 131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즈음 거울을 볼 때 마다 더벅머리가 된 제 모습을 보고 한참 웃곤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바깥을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한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서, 평범했던 일상의 많은 부분이 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식자재를 원활하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적이 불분명한 식사를 하고 있고, 향기 좋은 진한 커피를 마셔 본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방역을 위하여 도시 전체가 봉쇄되었고 (Lockdown), 도시 내에서도 지역을 나누어서 (Cluster) 눈에 보이는 옆 마을로도 이동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마을은 중무장한 군인들이 마을 입구를 완전히 봉쇄하여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한 가정에 한 장만 발급한 통행 패스를 소지한 자만이 짝수와 홀수로 구분하여 '병원, 약국, 시장, 주유소, 은행' 등과 같은 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진단키트나 치료제가 마땅히 없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오로지 바이러스로부터 '격리' 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 없이 하루 종일 집에 머물러야 하는 가운데, 마치 늘 여행을 다녔던 사람들처럼 서서히 답답함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치 늘 산해진미를 먹어 왔던 사람처럼 이제는 맛볼 수 없는 안타까움(?)에 떠오르는 새로운 메뉴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3여년 전 선교를 떠나기 위하여 준비했던 시기와 이곳 선교지에 처음 도착해서 적응을 했던 시기를 회상하며 '선교의 초심'이 많이 흐려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속된 선교 기관으로부터 주어진 첫번째 사역은 현재의 이곳이 아닌 '파푸아뉴기니'의 밀림 속에 있는 원주민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기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사역지로 떠나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중에 지참할 수 있는 개인 짐은 밀림으로 향하는 경비행기의 무게와 부피 제한으로 가방 1개만이 허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내와 함께 가방 2개만을 들고 사역지로 떠나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 놓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선교지 부임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중요하게 보이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곳은 내 집이 아니며,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파푸아뉴기니가 아닌 현재의 이곳으로 부름을 받고, 가방 2개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가지고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선교지로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나그네 삶에 대해 깊이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초기 이곳의 삶은 선교사답게 정말 단순 했습니다. 음식과 환경에 대한 불평이란 생각할 수 없는 사치이고, 부족한 저희를 부르시고 써 주심에 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십여 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제 주변을 돌아보니 가방 2개가 아닌, 한 트럭이 넘는 분량의 짐으로 둘러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안타까움과 불평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때가 선교지로 부임할 때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고전 7:22)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거의 모든 생활 기반이 정지함에 따라 생활고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식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물가가 두 배이상으로 오른 까닭에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이 곳도 어렵지만, 특별히 모든 통행이 막혀 방문할 수 없는 '디고스'에서 교인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담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농사가 주 산업이고 쌀이 주식인 이곳에, 쌀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 정부에서 구호품을 마련하여 마을마다 배급을 하고 있지만, 밀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서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속수무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르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이후 시행할 소위 '생활 방역 지침'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학교와 교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제부터 공간 크기에 따라 매우 제한된 인원만 모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생명과 같은 교회에서 제한된 인원만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모이기를 힘쓰는 지금의 교인들을 위한 예배는 물론이고 앞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하는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예배, 선교는 과연 무엇일까?'를 매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갈 방법을 찾는 가운데 '전교우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형편으로 집에 인터넷을 설치한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여 동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는 개인 또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매일 전교우가 함께 성경을 필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 이 때에 하나님께서 각 심령에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 서로간 통신 접속은 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과 같이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핸드폰의 번호로 인터넷 요금을 '미리' 지불하고 (Prepaid) 그 요금에 해당하는 시간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냥 앉아만 있을 수는 없기에,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이지만, 전교우들에게 '성경 필사'에 대한 소개와 취지를 설명하고, 지원하는 교우들에게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인터넷 요금'을 미리 지불해 주고, 필기도구도 보내 주어 마침내 전 교우 '성경 필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글을 쓸 줄 아는 초등학생으로부터, 대학 장학생들은 물론이고, 장년들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구역장들의 수고로 그동안 교회에 꾸준히 나오지 못했던 학생들도 이번 성경 필사에 참여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한 장씩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며, 이를 사진을 찍어 지정한 위치에 올려 놓으면, 전교우들이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매주 가장 열심히 참여한 교우들 중에 3명을 선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루 하루가 얼마나 바빠졌는지 모릅니다. 우선 저희들도 아침 일찍 성경 1장을 필사하고, 교인들의 인터넷 요금을 대납해 주기 시작하면, 쉬지 않고 올라오는 어린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자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같이 동감해 주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지만, 이번 성경 필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심령을 깨우시고, 이전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고, 이곳 선교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져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 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렘 30:2)**

